오음의 근본 원인은 '망상'

〈妄想〉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㊻ 망상의 원인

〈원문〉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셨다.

"알차고 진실하고 미묘하고 밝은 본래의 깨달음(本覺)은 원만하고 청정하여 죽고 태어나는 생사나 티끌의 때(塵垢)나 나아가 허공 따위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모두 망상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들이니라. 이는 원래 본래의 깨달음이 허망하게 기세간(器世間)을 발생하게 한 것이니 연야달다가 거울 속의 머리를 오인하여 광기(狂氣)가 발동한 것과 같아서 망(妄)은 원래 원인이 없거늘 망상 속에서 인연이라 하고 자연이라 하거니 저 허공의 성품도 실로 환(幻)으로 생긴 것이므로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것은 망심(妄心)으로 계탁(計度)하는 것일 뿐이니라.

아난아, 망(妄)이 일어난 곳을 알면 망의 인연을 말할 수 있지만 망은 원래 없는 것이라 망의 인연을 말한다 해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하물며 자연이라 추측하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여래가 너희에게 오음의 근본 원인이 다 같이 망상(妄想)이라 하느니라. 너의 몸도 애초에 부모의 망상으로 인하여 태어났으니 너의 마음이 망상이 아니었으면 망상 속으로 와서 목숨을 전하지 못했으리라"

〈강해〉

오음이 다하는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고 난 부처님이 아난에게 오음의 근본 원인이 망상(妄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본래 깨달음(本覺)은 원만하고 청정하여 생사도 없고 외부 경계에서 묻혀오는 때(塵垢)도 없으며 모든 존재의 아웃라인(out-line)이라 할 수 있는 허공마저도 없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상태에서 망상이 일어나 현상의 경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삼라만상 두두물물(頭頭物物)의 차별 경계가 망상경계(妄想境界)라는 말이다. 망상이란 원래 허망한 생각이라는 말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상정하고 집착하는 의식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 망상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망상은 전도된 생각이다. 이 망상을 여읜 것이 무분별지(無分別智)이고 반야(般若)라 한다.

그런데 이 망상이 일어나도 일어난 원인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다. 4권에 설해졌던 연야달다의 비유를 또 설했다. 실라벌성에 살던 연야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도깨비로 보고 광기(狂氣)가 발동해 미쳐서 거리로 뛰쳐나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야달다의 광기가 까닭 없이 일어난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망상의 원인이 없다고 했다. 이 원인이 없는 망상을 가지고 그릇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중생이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말은 〈능엄경〉 초반부에 여러 차례 나왔다. 모두 외도의 사견을 배척하는 말로 여래장묘진여성은 인연, 자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연(因緣)도 망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원인이 없으면 인연이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것. 인연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때를 맞추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연이라는 것은 인연이 아니면서 어떤 상황이 저절로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부모에게서 몸 받아 태어나는 것도 망상 때문이라 하여 목숨이 망상과 연계되었다는 말도 묘한 말이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을 유위법이라 하며, 이 유위법은 모두 생멸현상이다. 중생의 목숨도 생멸현상이므로 망상으로 인해 목숨이 전해진다고 하였다. '망상이 아니면 목숨이 전해지지 못했으리라' 고 한 말은 중생의 생사가 망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연기설에 있어서 최초의 생멸이 일어나는 출발을 아뢰야식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뢰야연기설(阿賴耶緣起說)이다. 이 연기설 다음에 나온 것이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이다. 연기의 시작이 진여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생멸이 일어나지 않은 불생멸을 연기의 주체로 본 것이다. 불생멸과 생멸을 두고 불생멸이 생멸로 전환되는 것이 물이 있어서 파도가 일어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파도가 일어나기 이전의 물은 생멸이 아니다. 연기된 상황은 파도가 일어난 상태이지만 고요한 물에서 일어났으므로 물이 없으면 파도가 일어날 수 없다는 논리로 진여에서 연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진여연기설이다. 진여연기설을 여래장연기설이라고도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공무변처해탈·무소구행의 최고 방법은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㊻ 6~9번째 삼각형 그리기

여섯 번째 경로는 황정, 명문, 영대 라인이다. 명문의 쿤달리니를 영대로 올려서 가슴바탕을 철벽으로 만들고 벽관을 하는 방법이다. 수인을 짓는다. 황정과 명문, 영대를 삼각형으로 연결한다. 삼각형의 내부공간을 주시하면서 쿤달리니 에너지를 영대로 올린다. 쿤달리니가 영대로 올라가면 등줄기 전체가 땀으로 젖는다.

영대로 올라온 쿤달리니 에너지로 갈비뼈를 순화한다. 그러면서 가슴바탕에 철벽을 형성시킨다. 가슴바탕에 세워진 철벽을 삼각형의 내면으로 비춰본다. 이것이 5선정에서 이루어지는 벽관이다. 공무변처해탈과 무소구행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 상태에서는 일치되던 모든 현상들도 차단되고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로의 운용으로 등 쪽 상(像)이 갖추어진다.

일곱 번째 경로는 영대, 중심, 하단전 라인이다. 이 라인을 통해 반신소주천을 행한다. 5선정에서 이루어지는 반신소주천이다. 5선정의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채약을 이루고 욕정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황정, 명문, 회음 라인을 운용하면서 성취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혼의식을 제도하고 공무변처정을 성취하는 것이다. 황정, 명문, 영대 라인을 통해 성취한다. 세 번째 단계는 반신소주천을 하면서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을 제도하는 것이다. 영대, 중심, 하단전 라인을 통해 성취한다. 수인을 짓는다. 영대에 각성을 두고 중심과 하단전을 함께 비춰본다. 영대와 중심, 하단전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주시한다. 그 상태에서 영대-중극-중심-하단전-황정-명문-영대를 연결해서 반신소주천을 행한다. 반신소주천을 하면서 드러나는 경계들을 삼각형으로 비춰본다. 호흡과 각성을 활용해서 생명에너지를 운용하고 밝은성품의 자연적 성향과 몸의 업식을 제도한다. 이 경로의 운용으로 흉부, 배부, 등부, 허리부의 상(像)을 공고히 한다.

여덟 번째 라인은 하단전 명문, 영대 라인이다. 이 또한 반신소주천의 라인이다. 수인을 짓는다. 하단전, 명문, 영대를 삼각형으로 연결하고 내부 공간을 비추어본다. 그 상태에서 반신소주천을 반복한다.

아홉 번째 라인은 중극, 황정, 중심 라인이다. 이 라인을 통해 공무변처정을 행한다. 수인을 짓는다. 중극, 황정, 중심을 연결한 다음에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비추어본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시각적으로 들여다본다. 공간의 형질을 느껴보고 그 상태를 심의 바탕으로 삼는다. 심의 바탕을 주체로 해서 오장의 상태를 비추어본다. 먼저 심장을 비추어본다. 그런 다음에 비장-폐-신장-간을 차례대로 비추어본다. 오장을 비춰보면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살펴본다. 감정이 일어나면 심의 바탕으로 비춰준다. 오장의 혼의식이 제도되면서 감정의 세업이 함께 제도된다.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을 함께 연결한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 심의 바탕과 미묘한 설레임을 함께 음미한다.

열 번째 경로는 중극, 황정, 명문 라인이다. 이 라인을 운용하면서 흉수 5번과 요수 2번 사이의 척수를 순화한다. 공무변처정을 마무리하고 식무변처정으로 나아간다. 수인을 짓는다. 중극, 황정, 명문 기점을 서로 연결한다. 황정에 각성을 두고 삼각형의 내부 공간을 주시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㊻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속지 않는 일만 있다

깨달음이 없듯 가르침도 없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듣고 이해한 오온의 미사여구들이지, 가르침에는 어떤 사실적인 것을 적시하기 위해 언어도 개념도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를 배워서 언어로서 깨달음을 표현하려 한다면, 그 자체가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된다. 스스로가 표현하는 것은 깨달음을 표현하고자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 엉키게 되고, 출발점이 뒤죽박죽이게 된다. 출발점이 한결같지 않으면 언제나 맞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대오온이 말하는 한결같은 것과 스스로가 말하는 한결같은 것에는 교집합이 없다.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다. 스스로가 말하는 한결같다는 것은 개념으로 세울 수도 없고, 모양으로 만들 수도 없어서 출발점에서 세워야 하는 대상이 없다. 오온은 대상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리고 오온은 출발하는 행위의 맹점을 놓치면서 대상으로서 출발해버린다. 출발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되돌아보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먼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리저리 뒤적이고 본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어디에도 그 자신이 모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면서 걷기만 한다.

출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표시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출발을 미루어야 한다. 출발선에 있다면, 발을 떼려는 그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다. 섣부르게 출발 하면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되어버린다. 짧은 기간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병은 아주 깊어진다. 물론 당사자는 병이 깊어진 줄도 모른다. 보이는 몸이야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되니 차차 밝아질 것이라 굳게 믿는 마음 때문에 병은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아주 큰 병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수술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전체를 수술해야 한다.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수술 받는 사람은 더더욱 힘들다. 따라서 출발하려는 행위가 가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다.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도 좋다. 출발하려는 이유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움직였다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앞뒤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런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가르침이 있다. 물질은 내가 될 수 없고, 느낌, 지각, 의도, 의식도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양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쉬워진다. 양변은 어느 쪽도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다. 어쩔 수 없는 추측들이 출발하게 한 것이지, 옳고 그름이 있어 출발한 것이 아니다. 찾는 답은 없다. 그러므로 물음이 있을 수 없다. 움직임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밝아져야 한다. 우리가 속는 것은 움직여서 속은 것이지, 속는 것이 있어 속은 것이 아니다. 움직임 없는 자리를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일단 속는 일은 없다. 속는 일이 없으면 잘 되는 것도 없고, 잘되지 않는 것도 없다. 오온은 판단을 유도하여 어떻게든 속이게 한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움직이게 만든다. 그 짧은 움직임에서 양쪽을 간파하여야 한다. 긴 시간을 두고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 너무 짧아 인식하기도 어렵다. 찰나를 놓치면 승부는 나도 모르게 끝난다. 승부가 끝나고 나면 항상 뒷북을 친다. 승자는 웃겠지만 패자는 씁쓸한 맛을 느낀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오온이 노리는 꼼수다. 수행은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속지 않는 일만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여야 한다. 스스로는 하는 일이 없다. 오온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려고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오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온이 시비를 거는 일이지, 스스로가 시비를 거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는 오온을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기고 지는 데는 관심도 없다. 오온이 성숙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앎은 어떤 선택이 아니다. 의식이 만들어 놓은 '나' 라는 허상은 실재를 선택하지 못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